

# 1분기 가계 빚 1220조원 돌파

전분기보다 1.7% ↑ · 지난해 동기 대비 11.4% ↑ ... 1분기 중 역대 최대 증가폭

1분기 가계 빚이 122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월말 가계신용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0조6000억원(1.7%)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125조4000억원(11.4%) 뛰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38조2000억원) 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지만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1분기 중에서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제2금융권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서도 증가세가 다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계신용은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116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569조3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채권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 양도분 증가액(4조5000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사실상 9조9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



**GIGA 스마트팜 출시** KT는 스마트팜 설비 구축 비용을 최대 40%까지 줄여주고 온실시설 제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KT GIGA 스마트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들이 KT GIGA 스마트팜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진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증가액(18조원) 보다는 폭이 줄었다. 한은은 "올 2월부터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7조4000억원 증가한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증가액(4조7000억원)보다 1.8배 가량 확대됐다.

판매신용은 6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신용카드 회사의 판매신용액이 전분기보다 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1분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진수 기자

## 폭스바겐 · 아우디 사장 고소키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된 국내 피해자들이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터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 아우디를 상대로 국내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의 핵심 관계자 총 10명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 지사에서는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터머 아우디코리아 사장 등 3명과 독일 본사에서는 최고 품질 관리자 프랑크 투흐와 율리히 하켄베르크 아우디 연구개발본부장 등 7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오는 6월 중이나 7월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 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금감원, 4분기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도

하반기부터 할부로 차를 사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신차 할부 금융 이용 사실로 은행 대출심사시 신용도 하락과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은행은 제2금융권인 신용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내린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나 · 씨티 · 농협 · 광주 · 전북은행 등은 현재도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금융 이용 건수는 2013년 48만 3000대(9.1조원)에서 2014년 56만9000

대(10.6조원), 2015년 64만7000대(12.2조원)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 대출심청과 상환 관련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도 제공한다.

이밖에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를 유도한다. 최근 주요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 감사결과와 비대면 보증의

사 확인만으로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됐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담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을 근절하는데 집중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진수 기자

## 보험사 1분기 당기순이익 6.3% ↑

2조235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18억 증가

지난 1분기 국내 보험사는 영업 손실이 줄며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3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8억원(6.3%)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3270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814억원) 대비 456억원(3.6%) 늘었다. 보험료 유입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47.1조원)로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늘고,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수수료 수입 등으로 영업외순이익이 증가했다.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08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2억원(10.5%) 늘었다. 운용자산이익률 하락과 전년동기 일회성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로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외순이익이 감소했으나 손해율이 1%포인트 떨어지며 보험영업 손실이 감소했다.

1분기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47조4693억원으로 2조3400억원

(5.2%) 늘었다.

생보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매출이 각각 8.2%, 7.5% 늘면서 수입보험료가 28조9933억원으로 1조6575억원(6.1%) 증가했다.

손보는 자동차보험 증가(11.9%) 등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6825억(3.8%) 늘어난 18조4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93%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0.07%포인트 하락한 9.36%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총자산은 974조3496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80조7994억원(9.0%), 자기자본은 97조6603억원으로 5조2405억원(5.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하지만 수익성 지표(ROA · ROE)가 하락했고, 저금리 지속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투자환경은 악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산업 · 수출입은행 추가 총당금 쌓아야

STX조선 법정관리로... 산은 1조원 · 수은 수천억 규모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나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이 법정관리가 유력해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총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산은은 STX조선에 3조원, 수은은 1조원의 여신을 제공한 바 있다. 산은은 1조원에 육박하는, 수은은 수천억원의 총당금을 각각 쌓아야 한다.

특히 수은의 건전성이 우려된다. 수은의 BIS비율은 9%대에 불과하다. STX조선 관련 총당금을 쌓게 되면 BIS비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더욱이 수은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다.

성동조선은 STX조선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은 이를 거부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갔다. 또 올해 단 한건의 수주를 따내지 못한 점도 다행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STX조선 다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성동조선을 꼽기

도 한다.

수은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물론, 배가 인도되면 선수급보증(RG)도 꺼진다"며 "STX조선처럼 당장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

산은의 BIS비율은 14%대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총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형국이다.

산은캐피탈의 매각 역시 불발되면서 정책금융 역할을 위해 사용할 재원 마련에도 실패했다.

여기에 수은에 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하게 되면 미약하나마 자기자본이 줄면서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STX조선의 법정관리가 쌓아야 하는 총당금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미 어느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